

송원산업, 상하이 플라스틱 박람회 참가

송원산업은 중국 상하이(Shanghai)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박람회에 참가해 성장시장인 중국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원산업은 4월19일에서 2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국제 플라스틱 박람회 <Chinaplas 2010>에 참가할 예정이다.

중국 첨가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송원은 이미 중국의 주요 수요처들에게 첨가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스판덱스(Spandex), PVC(Polyvinyl Chloride),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 서비스 공급망과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 설립한 Chem-service Asia를 통해 수요처들에게 규제물질과 화학물질 관리법의 입법화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가고 있다.

송원그룹 최고 경영자인 박종호 사장은 “송원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상당한 지리적 잇점이 있다”며 “중국에서도 지금까지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고 차기 투자로 중국시장에서 비중있는 요구와 다양한 제품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송원 자회사 그룹을 소개할 수 있게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0/4/5>